

다시 부르는 희망 노래 #4

시련과 고난의 절망적인 상황속에서 사회복지제도와 현장 실무자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얻은 삶의 체험 수기 글입니다.
어려움 속에 손을 잡아 준 이웃들에 대한 고마움과
어려웠던 자신의 삶을 고백해주신 글쓴이의 용기가 돋보이는 글들입니다.



봄날에 아지랑이

윤태경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만큼 살아야 고통과 어려움과 낙담속에서 헤어 나올 수 있을까? 얼마나 더 살아야 어려운 일이 없을까? 아니, 안 생길까 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생각들...

망한 사람치고 옛날에 부자 아닌 사람이 없었지만 그래도 옛날 초등학교 3학년 때 할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진 적어도 우리 집은 부자였다. 지금도 고향 어른들을 만나면 얘기 하신다 그 땅 다 어디 있냐고 부자가 망해도 삼대는 간다는데 우리 집은 전혀... 완전 망한 것이다. 나도 시집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데 친정집 일이 이렇게 버거울 수가 없다 친정은 2남1녀 그 중에 나는 유일한 딸이다. 2003년 교통사고로 내 동생이 1급 장애인이 됐다 사고가 났다 길래 가봤더니 피 한 방울 안 흘렸기에 마음이 놓였는데 알고 보니 경추가 다친 것이다. 동생을 일으켜 세우기까지 정말 눈물의 세월을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나마는 1년 6개월 만에 내 동생은 기적 중에 기적으로 일어났다 손이 말을 안 듣는 징애를 안은 채로... 다리도 불편하지만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보상금은 병원비로 다 썼고 가해지는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되어 있었다. 그 외중에 집은 재개발된다고 하면서 도장을 찍으라해서 오빠와 같이 서류에 도장을 찍어 줬는데 그것이 사기였다. 현재 집은 경매중이다. 하도 큰일을 겪다보니 정신이 없을 때가 많아서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를 때가 있다.

고향땅에 고향집이 없으니 우리집 같이 쫄딱 망한 집이 없을 것 같다. 오빠가 올케와 같이 살다 올케가 죽고 혼자 몇 년 동안 떠돌아다니며 살아서 가끔 얼굴을 봤는데 느닷없이 집에 들어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술 먹고, 고성방가에 욕설에 엄마에게 대들고, 동생 죽인다고 난리다. 이웃집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오고, 칼을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참으로 무서웠다 집 문제로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에 마신 술로 몸은 만진 창이가 되어 정상이 아닌 사람이 되어 있었다.

친정엄마를 우리 집에 모셔다 놓고 가보니 오빠가 온몸이 흔들려 서있지도 못했다. 그래도 한눈만 팔면 술을 사다 먹었다. 죽으면 된다고... 병원에 데리고 가니 간경화란다 또 다른 병원에 가도 간경화. 술만 깨면 몸이 흔들려서 물을 못 먹을 정도다. 계속 구토를 하면서 시키면 물을 토하고 사람이 죽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싶었다. 인근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췌장에 불혹이 생겼는데 크기가 크니 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야 한다고 빨리 큰 병원에 가란다. 정말 경황이 없고 돈도 없고 돈이 없으니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술사다 먹으면서 죽으면 된다고 소리, 소리 지르고 지옥이 따로 없었다. 어떻게든 해보야겠기에 읍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더니 서부희망케어센터 담당분이 오시고 시에 연락해서 남양주시청 주민생활지원과 김문희 팀장님이 직접 현장에 나와서 오빠의 상태를 보시고 긴급지원으로 입원

결정을 해주셨다. 일이 급히 진행됨에 나도 놀랐다. 김문희 팀장님의 적극성에 또 한번 놀란 일은 엄마의 다리를 보고 엄마도 입원을 하셔야한다는 것이다. 엄마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엉덩이를 밀고 다니시는 데 난 엄마 다리야 노환이니깐 당연히 아픈데 왜 그러냐고 내가 도리어 물었다. 그랬더니 아니란다. 엄마 상태가 심각하다고 병원까지 알아봐주시고 매일 전화가 와서 빨리 병원가라고 야단이다. 솔직히 아무리 시에서 하는 일이라지만 내손에 든 돈이 없으니 어디까지 얼 만큼에 돈이 있어야 하는지 계산이 안됐다. 엄마도 입원하면 내 돈이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더군다나 엄마는... 머뭇거리는데 팀장님이 성화시다. 왜 엄마 입원안시키냐고... 걸지도 못하는 데...강제로 등 떠밀다시피 엄마를 모시고 병원을 안 갈래야 안갈 수가 없었다. 엄마 병원비도 시에서 긴급지원이 결정이 되었다. 병원비는 인제 안심이다.

엄마는 노환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무릎 관절 부분 뼈에 종양이 자라고 있는 것이었다. 의사선생님 말씀에 가슴이 찡해오며 눈물이 났다 어찌면 우리 엄마 상태를 김문희 복지사님께서 그렇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 정말 대단하다는 말밖에 딸도 알 수 없었던 것을...

평생 자식을 위해 헌신하신 어머님 젊었을 땐 남편 술주정으로 삼남매를 키우시느라... 나이드셔선 머느리 하나 없어서 아들 둘 수발에 지금까지도 ...

지나고 보니 꿈만 같고... 잘 이겨낸 거 같습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친구처럼 형제처럼 늘 전화 해주시며, 위로해주시며 다독여 주신 김문희 복지사님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집은 오빠의 작은 꿈들로 희망이 싹틔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아르바이트도하고, 병원에 자주가고 있고...

천사 같은 도우미 누나

김갑수 | 지체장애1급 장애인

무서울 것 없던 28살 되던 16년 전, 뜻과는 상관없이 속도 제한 없이 굴러다니는 네 바퀴를 온 몸으로 만나 끔찍한 하반신 마비라는 몸으로 다시 태어난 저는 날개 부러진 새처럼 그렇게 꺾인 꿈을 가슴에 담고 평생 휠체어를 좋은 벗 삼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게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오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며 저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너무나 힘든 병수발을 1년 넘게 하면서도 늘 미소로 심하게 다친 몸으로도 살아야 할 충분한 이유를 준 것으로 고마운데 거기다 결혼이란 아주 특별한 선물까지 주었습니다. 다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에 너무나 어렵게 힘들게 얻은 딸과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저 뿐만 아니라 모두들 하늘이 내린 천사라 칭송이 자자했지요. 그러나 그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멀쩡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는 냉혹한 현실의 커다란 보호막인 몸과 바꾼 억대의 돈을 모두 사기 당하고 마음과는 다르게 싸우는 나날은 늘어만 가다 방향이 다른 이 별열차에 푸시맨에게 순간 떼밀리듯이 그렇게 따로따로 올라랐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서 남편과 아내로 불리는 것은 남자는 연애 때와는 다르게 남의 편이 되어서 남편이고 여자는 아낌없이 내 것을 모두 준다고 해서 아내라

엄마도 수술이 잘됐다고 담당의사선생님 말씀에 얼굴이 환하게 피셨습니다. 내년 봄엔 잘 걸어다닐 수 있다며 놀러다니셔도 된다고 하셔서... 집 문제도 남았는데 어떻게 되겠지요 저도 내년엔 미용사 자격증을 따고 싶습니다. 경노당에 가서 어르신들 머리라도 해드리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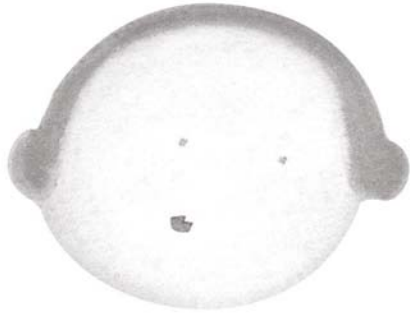
내가 받은 것 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나마 봉사의 시간을 가져야... 아니 해야 할 것 같아요. 김문희복지사님과 의논해서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며칠 전 오빠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조금 탔다고 엄마도 주고, 동생도 주고, 반찬도 사오고 참 이제 살맛납니다.

남양주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모동기 | 복지사업을 하시는 남양주 시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님들께 감사하고 앞으로 남양주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각오로 참여하였음. 우리집은 절망속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남양주시청에서 병원비와 생계비를 지원받아 이제 막 어둠과, 막막했던 터널을 빠져나온 것입니다. 1급 장애인 막내동생, 희망을 갖게 된 우리오빠, 견지 못해 고통 받고 생활하셨던 엄마. 이제는 날아갈 듯 행복하시단다. 남양주시청 김문희 사회복지사님...고맙습니다.



고 한다는 우스갯말처럼 언제나 자기편이 되어 줄 거란 믿음으로 처녀의 몸으로 주위의 낯선 반대로 아랑곳없이 제게 시집와 고생만한 아내에게 아내 편이 아닌 남편 편이 드는 회복 불능의 상처를 그 누구도 아닌 철석같이 믿었던 바보 같은 남편이 주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 아내에게 줄 것이라곤 아직 젊고 예쁘니 좋은 사람 만나 배 아파 아이 낳는 아픔과 기쁨 그리고 행복도 누리며 살라는 어떻게 보면 무지의 이별보다 더 기막힌 철없을 무지였을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장애 1급의 심하게 다친 몸으로 똥고집일지 모른 그 결정의 배경에는 어머니가 늘 내곁에 있어줄 것이라는 어리석음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자식들은 굶기지 않으려고 시작한 구멍가게를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아버지를 하늘 여행 보내시고 자식이 다치고 이혼하는 못 볼꼴 보시면서도 자정 전에는 문 닫지 않고 꼬맹이부터 술주정뱅이까지 비위 맞추는 기계적인 삶을 지금까지 사시는 분입니다. 그 때 그 일이, 그 때 그 사람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 들고 더 열심히 사랑할 것을 하는 시가 비수로 가슴에 꽂혀 돌

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음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랑 헤어진 그날부터 며느리에게 밥을 얻어먹어도 시원치 않을 연세에도 불구하고 딸과 둘이 사는 못난 중년의 아들과 손녀를 굶기지 않으시려 장사를 하시면서도 아침밥과 살림을 해주시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마다 오시는 어머니의 발걸음은 10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딸이 커갈수록 아내의 빈자리보다는 엄마의 빈자리가 커져만 가고 중년의 아들인 저조차 거스를 수 없는 세월인데 그 자리를 까마득한 75세의 어머니가 대신하는 것을 보아야만 하는 날들에 막막함이란... 글자가 닿을 수 없는 회오리바람으로 불어와 주체 못하는 후회의 눈물 흘리는 날은 늘어만 가도 현실은 언제나 가을 하늘 같은 높디 높은 벽이었습니다.

때로는 술에 젖고 때로는 고독에 울부짖는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6년 전 하늘은 제게 우연한 기회에 로또 복권 허가권이라는 선물을 주셔서 6년째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의 저는 기쁘이고 어머니에게는 조금의 자랑이자 위안이겠지만 커가는 딸에게는 엄마의 빈자리와 더불어 아빠의 빈자리도 주어 어른도 감당하기 어려운 눈덩



이 구르듯 커져만 가는 외로운 날들을 쌓이게 되었다. 사춘기를 맞이하는 딸의 반항은 늘어만 가 멘토를 만나게 해주려 수년전부터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상담도 해보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안타까운 눈빛과 먼 산 불구경하는 듯 한 반응에 병어리 냉기슴 앓듯 바라만 볼 뿐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던 1년 전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중증 장애인 생활 보조인 서비스를 알게 되었고 지금 또 다른 삶의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기쁨의 날들입니다.

저와 띠동갑보다 많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고운 얼굴 만큼이나 너무나 예쁜 마음의 소유자인 하인옥 누님께서 75세의 어머니와 44살 못난 아빠의 바윗돌 같은 무거운 걱정들을 얼마나 가볍게 해주시고 본의 아니게 14살 딸과의 멀어져간 대화들을 끌어당겨 맑은 햇살 같은 웃음을 주시는지 알까요. 그분은 일주일에 세 번 오셔서 청소며 빨래 더불어 한창 멋 부릴 사춘기 딸의 옷가지와 먹을거리 그리고 방정리, 또한 예민한 생리현상까지 챙겨주셨습니다. 한창 사춘기인 올해 중학생이 된 딸은 얼마전 왜 자기 아빠만 장애인이고 엄마도 없냐는 놀림을 받아야 하나며 너무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때 평평 우는 마음의 상처와 고민들을 엄마 같은 보드라운 마음으로 감싸주시며 챙겨 주셨습니다. 또한 가끔 가다 하반신 마비로 생리 기능을 잃어버린 실수로 생긴 저의 지저분한 빨래도 어머니같은 인자한 미소로 부끄러움을 감춰주셨다. 긴급 구조 신호를 시간에 관계없이 보내도 언제나 마다하지 않으시는 119 보다 더 친절하고 예쁜 하인옥 누님께 이렇게 글로나마 고마움을 전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손마디만큼 높아져가는 파란 하늘과 색색으로 옷 갈아 입는 예쁜 산들을 봐도, 농부의 환한 웃음 주는 황금 들녘 사이사이로 빠르게 다가오는 차디찬 겨울이 느껴집니다. 칠혹 같은 어둠과 매서운 칼바람뿐인 새벽을 잠이 덜 깨신 꾸부정한 몸으로 맞으시며 날마다 오시는 한 많은 어머니 주름투성이 얼굴을 또 어찌 봐야하는 걱정으로 먹먹한 가슴 끊이지 않아 가장 잔인한 계절이 되어버린 가을 그리고 겨울을 숨 고르며 잃어버린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똥발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포기할 수 없었던 무너진 꿈을 남은 날들에 일으키는 비타민 같은 활력을 주는 정부의 좋은 정책에 마음에서 우리나라의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 줄테니 말하라면 그것은 저의 다침도 아닌 이혼의 그날로 돌아가 지울 수 있는 그 하나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장애 비 장애를 떠나 이혼이라는 것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그런 원치 않는 일이 내 앞에 오면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아이는 엄마의 이슬을 먹고 자라는 것이 좋겠다는 말을 떨리는 말로 감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지난 제 16년의 삶이 말해주고 또한 하늘의 부름에는 순서가 없으니 그날까지 건강 또한 장애 비 장애를 떠나 특히나 신경 쓰는 날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김갑수님은 교통사고로 지체장애1급의 장애인이 된 과정과 장애를 갖고 사는 어려움, 그리고 장애인생활도우미의 제도로 사춘기 딸을 키우며 도움을 받은 사연을 통해 활동도우미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희망으로 날다

김영진 | 희망케어매니저

갑작스레 옷깃을 여미게 하는 추위에 놀라며 6개월간의 도전과 여행을 돌아본다. “희망으로 날다” 정말 날아 오른 시간이었다.

아무 준비도 기대도 없이 동사무소 문을 들어설 때는 한창 봄을 지나고 있었다. 그러나 나의 봄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을 무렵이었다.(지금 창밖으로 떨어지는 은행잎이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 신기하다.) 고개를 떨구며 신청서를 제출하고 돌아설 때까지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묘한 떨림을 느끼며 기다리는 일주일간의 시간에 나는 이미 날개를 달고 있었을 듯싶다.

“희망케어매니저” 5일간의 교육과정을 갖고 퇴계원면으로 근무지를 배정 받던 날은 갓 사회인이 된 새내기वाद도 흡사했을 듯! 복지수혜자 전수 조사가 주업무였던 4개월의 시간은 대상자들 삶의 소리를 들으며 아픔과 고통을 함께 했던 귀한 시간들이었다. 그것들은 나의 부모, 형제, 자녀들의 아픔과 좌절이었고 그들과 나누었던 시간은 삶의 기대와 회복으로 가고픈 나의 갈망과도 같았다.

자살시도! 너무도 끔찍한 절망에서 나는 극단을 선택하려 했었다. 남편의 사업 실패와 말로만 듣던 빚쟁이들의 횡난은 30대의 나의 삶을 더 이상 갖고 싶지 않게 하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을 넘어선 죽음과도 같았다. 채무자들의 고소로 기소 중지자가 되어 도피를 한 남편은 더 이상 아들과 나의 울타리가 아니었고, 울타리가 없이 남겨진 모자는 황야에 버려져 야수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된 의미 없는 인생이라 생각했었다. 관리비 연체로 전기도 수도도 다 끊긴 1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있는 여자의 눈은 초점을 잃은 끝없는 공허였다. 등 뒤로 돌 지난 쌍둥이 딸들이 재잘거리며 뛰노는 거실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난간을 잡고 있던 여자는 돌아서 힘없이 웃고 있었다. 베란다 중문을 들어서서 나는 죽음에서 삶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히 보였고, 살아 갈 방법을 찾아야 했다. 남편만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난 이기주의자였다. 난 절망적인 마음을 15층에서 떨어뜨리고 엄마로 서야 했다. 쌍둥이가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게 되면서 차상위 계층으로 혜택을 받았고, 대한주택공사에서 기존 주택 전세임대 자격을 받아 세 아이들과 함께 살 집을 마련하게 되면서 남편은 밤에 신문 배달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다시 가정은 재결성되었다.

올해 아들은 한국체육대학에 입학하고 쌍둥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으며 나는 희망근로로 다시 비상을 꿈꾸며 날아본다. 사회복지가 시작되는 남양주시의 희망케어센터! 10월부터 남부희망케어센터에서 통합관리 전산일을 하며, 4개월간 퇴계원면에서 만났던 어르신들, 장애우들의 얼굴이 스치는 것은 그들의 내일은 희망으

로 함께하는 시간이기를 바라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의 마음이 내게도 스며들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제 막 알 껍질을 깨고 나온 여린 새 같은 나의 소망이 단단한 새살을 입기를 바라는 나는 오늘 사이버대학의 사이트를 열어본다.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으로... 여자는 이름과, 엄마라는 이름으로 함께 했던 시간에서 눈물로 보낸 나의 날들에 박수를 보내며 이제 꿈을 꾸는 자로 오는 시간은 두 팔 벌려 뛰어가 맞고 싶다.

모두가 희망이라는 날개로 힘차게 날아올라 비상하는 날을 기다린다
2009년11월의 모퉁이를 돌면서...

김영진님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절망끝에서 있던 과거의 아픔과 함께 희망케어매니저일을 시작하며 자신의 꿈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진솔하게 표현했습니다.

어둠속에 비친 한줄기 희망의 빛



이수백 | 지체장애 1급 장애인

태어난 지 백일도 안 되어 고열에 시달리며 괴로워하는 저를 부모님은 어떻게 고쳐줄 수도 없는 시대에 태어났기에 윗목에 밀어 놓았는데 하루 저녁을 자고 나서 열이 식으며 깨어나자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이 되었어요. 그 후로 자라면서 어릴 때는 손과 발로 기어 다니며 생활을 했지요. 여러 어린 친구들과 기어 다니기도 하며 창피한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나 무언가 창피를 느끼게 될 때에 어린 친구들에게 병신 또는 찌파라는 소리를 들을 때는 참을 수 없는 말이 되어 머릿속에 각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는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며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한 때에는 집에까지 찾아가서 싸워가며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지 하지만 다 소용이 없는 일이었지요.

병신, 찌파라는 굴레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그때 저에게 아버님께서 지금 말하는 다리 보조기를 해주셨는데 다리에 힘이 없는지라 그것조차도 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 아버님께서는 비싼 돈을 주고 해주셨지만, 영장수에게 고철 값을 받고 팔아버렸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업고 학교에 다니시다가 힘이 드셨는지 포기하게 되었어요. 학교에는 다녀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버님이 목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목발을 잡고 다니며 걷는 연습을 해서 잘 걸어 다니게 되자 2살 적은 동생이 입학하하면서 같이 다니게 되었어요.

동생에게는 힘겨운 날이 되었어요. 자기 가방도 무거운데 형 가방까지 가지고 학교를 다니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겨운 날들이 되었을까 나중에야 알게 되었어요. 가방이 너무 무거워 팔이 밖으로 휘는 지경이 되었는데도 팔이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힘이 들어도 힘들다는 말조차도 한번 하지 않은 동생. 제가 동생에게 말할 수 없는 형이 되어 지금도 동생에게는 항상 어떤 그런 짐을 지어준 그런 기분이예요. 어머니는 살아 계실 때 항상 가슴에 어떤 덩어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말을 하실 때에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에 와서는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 그때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니 부모님에게도 그렇고 형제들

에게도 우리 장애인들은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공부는 잘 하지 못했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정은 어려워서 동생은 중학교에 가는데 저는 할 일이 없었어요.

무엇을 할까 하다가 길에서 자판을 놓고 아이들에게 작은 먹을거리를 팔아보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 동네에 아주머니 한분이 가내 공업인 시곗줄 만들어 파는 공장을 소개시켜 주셔서 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나 가정이 어려워 월급을 받으면 어디로 다 들어가 버리고 남는 것이 없었어요. 세월은 흘러만 가고 그러다가 학원에 전자수를 배우러 다니려고 돈을 모아놨는데 그나마 형님이 갖다 써버리고 TV를 보다니 재활원에서 시계와 도장을 가르쳐 준다기에 꿈을 안고 기술을 배웠으나 저에게는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직장 생활을 해도 어찌된 일인지 돈을 벌어도 돈은 간 곳이 없고 생활은 항상 힘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여성과 결혼을 해서 행복한 보금자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에게는 꿈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생활도우미 하인옥씨를 알게 되었어요. 그때는 도우미 일을 하시는데 옆에서 보니 참 마음으로 도우미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도 생활도우미 일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저에게도 기회가 왔어요. 제가 청소를 하고 집안을 정돈하려고 해도 힘은 힘대로 들고 제 마음에 항상 들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도우미인 하인옥씨를 만나 생활을 하게 되면서 저에 생활에 빛나는 생활이 되었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남의 남자에 속옷까지 세탁을 해주시고 집안 정리 정돈이 마음에 들게 깨끗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웠어요. 제가 장애인 협회에 있으면서 컨테이너에서 생활을 하는데 집수리를 하는 분에게 이야기를 해서 컨테이너 앞에 다니기 좋게 세면을 해주시고 도배와 장판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또 창문에서 바람이 들어와 춥다고 창문에 스티로폼과 형질 테이프로 막아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등이 가려울 때 긁어주면 시원하듯이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알아서 다 해준답니다. 올 여름에는 복지관에서 제주도 여행을 가게 해주셔서 새로운 세상을 보았어요. 저에게는 여행은 언제나 꿈같은 일이었는데 대학생 봉사자들이 같이 동행을 해서 가는 곳마다 도움을 주어 여행이 꿈이 아닌 여행이 되었어요. 이러한 일들이 모두 좋은 서비스를 베풀어주시는 관계 기관 단체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장애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좋은 도우미 서비스입니다. 생활도우미를 만난 지금은 저에게는 힘겨운 생활이 빛나는 생활, 아름다운 생활이 되었어요.

이수백님은 지체장애1급의 장애인으로 사는 어려움과 함께 생활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헌신적인 생활도우미분의 도움을 받은 사연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순자 | 자활사업근로자

2007년 4월, 서울 길음동의 어느 아파트 준공 청소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길음동에 대량으로 준공 청소를 맡게 되었다. 매일 한 집이나 두 집, 청소를 하는데, 갑자기 그날은 세 집을 맡게 된 것이 화근이 된 셈이다.

미리 해 달라는 예약이긴 했지만 불과 이틀을 남긴 일이라 갑자기 사람을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다 쉬는 주말에 선뜻 작업을 하겠다고 나설 사람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알바 몇 명을 구해 작업을 하기로 했다. 못 한다면 고객과의 신용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응한 일이었다.

일을 맡기는 고객들은 일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다. 못 한다 설명을 해도 이사를 해야 한다고 우기는 데는 어쩔 수가 없었다. 청소도 서비스 직업이다 보니 별의별 사람을 상대해야 하니까 애로 사항이 많았다. 문제는 작업을 해야 하는 식구

가 베테랑이 아니고, 알바생이다 보니 작업량은 많고 시간에 쫓겨 마음만 급하게 되어 무엇이든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대강 일을 마치고 마무리 단계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음 집으로 가고, 나 혼자 남아서 미처 손이 못간 데를 구석구석 찾아 마무리 작업을 하는 중이었다.

느닷없이 주인이 들어왔다. 나는 마음이 더욱 급하게 되었다. 깨끗하게 마무리를 다 해 놓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일이 덜 된 상태에서 주인이 온 것이다. 주인은 오자마자 시비조로 여태껏 무얼 했느냐, 왜 이렇게 청소를 못했느냐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것이었다. 나는 ‘고객님, 지금 부족한 곳을 제가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말했지만, 오전 중으로 마치고 이사를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된 곳이 많느냐며 추궁만 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다음 날 이사를 온다 하여 거기 맞추어 일을 하는 중이라고 했지만, 주인은 말이 통하지가 않았다. 아무튼 시비조로만 하는 말에, 나는 마음에 안 드시면 제대로 다해 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 고 사정을 했지만 주인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것도 청소라고 했느냐며 한군데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잘 안된 데를 일러 달라고 했더니,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안 든다며, 아무 데도 더 손대지 말고 내 집에서 빨리 나가라고 했다. 그리고는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일한 돈도 못 주겠다고 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을 했는지, 정말 내가 왜 이런 청소 일을 하러 다니는지 후회가 되었지만 꼭 참고 그 집을 나와야 했다.

그런데 나는 문을 닫고 나오다가 집 주인 부부가 나누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여보, 우리 점심 사 먹고 조금만 손보면 내일 이사할 수 있겠다”며 좋아하는 목소리

를 들었다. 청소비 안 주려고 트집만 잡고 나를 쫓아냈다고 생각하니, 당장 쫓아 들어가 “나, 돈 벌었지”라고 즐거워하는 여자와 한바탕 싸우고 싶었지만 안 좋은 소문이 날까 봐 꼭 참아야 했다. 다음 집으로 옮기며 분한 마음에 눈물이 날 지경이었다.

그런데 다음 집에서는 정말 좋은 주인이 기다리고 있었다. 작업을 하는데 수고가 많다고 하면서 먹을 것도 사다 주고, 고맙다는 인사도 했다. 참고 사는 자는 복이 온다고 하던가. 산 너머 산일까 봐 걱정했는데, 무엇이든 사 주겠다고 집주인의 말에 앞서 속상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그 날 나는 마음에 쌓여 있던 후회와 울분과 슬픔의 찌꺼기들을 말끔히 털어내듯, 정성을 다해 청소 작업을 진행했다.

세상은 이런 것을 두고 살만하다고 하는가 보다. 앞으로는 더욱더 내가 하는 청소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남들에게도 인정받는 전문 직업인이 되겠다고 다짐해 본다.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말끔히 닦아내는 마음으로 청소를 한다.

정순자님은 자활공동체 사업의 근로자로 청소일을 하면서 느낀 어려움과 서러움, 보람이 담긴 에피소드를 통해 일을 하는 마음가짐을 함께 나누고자 공모하셨습니다. 아파트 준공 청소 작업을 하던 중 고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에 트집을 잡아 청소비를 내지 않으려 한 고객을 대하며 느낀 글쓴이의 아픔과 그 속에서도 잃지 않은 직업인으로서의 의식과 소박한 삶의 태도를 느낄 수 있는 작품입니다.

액땀?!

우재섭 | 자활사업참여자

새해가 어느덧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다. 새해 희망사항이 뭐였더라? 혹 무언가 작심을 한 건 없었나. 또 다시 앞만 바라보는 나로 돌아왔다. 작년을 보자면 정말 아니었는데... 내가 하는 일이 건축 쪽의 일들이라 겨울엔 별로 일이 없다. 더군다나 온 세계에 불어 닥친 불경기 바람에 우리나라도 힘들기 짝이 없다.

1월 5일.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네, 안녕하셨는지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치레를 끝내고 본격적인 작업의 내용을 듣고는 목요일로 날짜를 정해 일하기로 했다. 페인트 일이었다. 외부에서 한 사람을 픽업시키고 우리 ‘길 건축’과 함께하기로 작정했다. 페인트를 준비하고 목요일 아침 동서울터미널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순조롭게 시작하였고, 새해 첫 일거리라 그런지 일이 잘 되었다. 한참 페인트 작업을 하던 중에 장안동에 맡겨 두었던 트럭 정비가 끝났다고 하여 내가 찾으러 갔다. 그게 문제였다. 작업의 오너 역할을 하는 내가 빠져선 안 되었던 거였다. 모든 작업



의 첫 순서부터 마지막 끝나는 순간까지의 모든 일들을 지시하여야 했다. 하루 일당 장이를 데리고 왔고, 우리 길건축 직원들이 남았다. 아무런 책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 순조로운 일이었기에 한 두어 시간 일찍 끝났다. 그 때부터 문제였다. 순간 서두르는 성격의 직원이 에스컬레이터에 페인트를 옆질렀던 것이다. 때마침 전화가 와서 일 끝났는데 어찌냐는 내용이였다. ‘짐 정리하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잘못 알아들었나보다. 차를 찾아 막 동서울터미널로 들어오는 순간의 일이였다. 일은 터졌다. 계속 돌아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미웠다. 내가 슈퍼맨이라면 당장에 멈췄을 텐데... 머릿속이 하얗다. 어찌지, 걸레를 들고 무작정 닦기 시작했다. 터미널 직원이 와서 난리다. 여기서 내가 당황해선 안 된다.

“제가 알아서 처리해 드리죠. 걱정 마십시오.”

서두르지 않고 했다면 지금쯤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있었을 텐데, 일 욕심이 급했던 것이다. 저녁도 굶으면서 8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까지 닦다가 직원이 왔다.

“내일 에스컬레이터 전문가가 와서 해체작업을 하려 합니다.”

“내일 다시 오셔서 같이 닦으세요.”

“예. 그래야겠습니다.” 하고는 명함을 주고 나왔다.

힘이 쪽 빠져있는 직원의 모습을 보자니 맘이 아팠다. ‘야! 그냥 새해 액땀했다 생각하자. 그래야 맘도 편하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신경 끄고 편히 쉬어라. 내일 동서울터미널에서 다시 보자구나’ 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내 맘 속은, 내 성격에 우와~ 잠도 안 오고 아주 환장했다. 곰곰이 생각했다. 역시 난 A형 피가 흐르고 있구나. 좀 대범해야 큰일을 하는데... 다시 한 번 생각하니 조금씩 마음의 평온이 오는 듯했다. “그래! 액땀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편히 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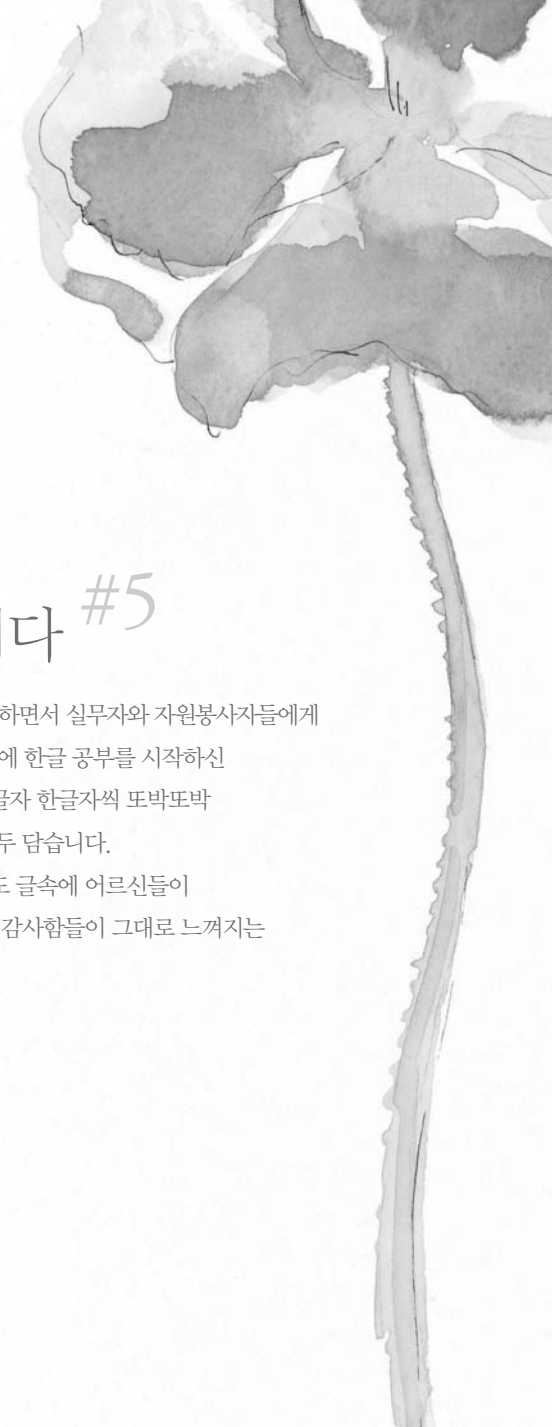
다음날 동서울로 가서 2명의 전문가와 열심히 페인트를 닦는 작업을 했다. 어제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지 쉽게 해결이 되어 갔다. 오후 4시쯤 되어 모든 작업이 끝나고 전문가 인건비 30만원을 주었다. 페인트 작업 총 비용이 65만 원이었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니 25만원이 남았다. 정확히 따지자면 밥값, 유지비, 나와 직원 인건비를 생각하면 적자다.

그래도 편히 생각하기로 한 마당에 그나마 남았으니 감사하다. 그렇다. 욕심이 부른 화. 정말 액땀 제대로 했다. 더 커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더욱 멋져가는 내가 되어 가는 일이라 생각하구... 하루가 저문다.

공모동기 |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별별 경우를 다 겪게 되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음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자활의 집수리 공동체 대표로 근로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로서, 기분 좋게 작업하러 나간 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나 그 상황을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받아들이고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과정을 소탈하게 쓴 글임.

참... 고맙습니다 #5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실무자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함을 담은 글입니다. 늦은 나이에 한글 공부를 시작하신 노인복지관 한글반 어르신들이 한글자 한글자씩 또박또박 정성들여 직접 쓰신 편지글들을 모두 담습니다. 문장과 글의 완성도는 부족할지라도 글속에 어르신들이 글을 배우는 기쁨과 선생님에 대한 감사함들이 그대로 느껴지는 소중한 글들입니다.



나의 소중한 학교 ‘노인대학’

김주심 |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저는 지금 온 세상이 환하게만 보이는 느낌으로 즐겁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65년 이상 긴 세월을 눈뜬 장님 같이 글을 모르고 살아오다가 이제야 글을 읽고 쓰게 되었으니까요.

6.25 때 아버지를 여의고 생계를 책임지지 않는 어머니 때문에 저는 어린 두 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소녀가장이 되어 배운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었고, 자라서 결혼하고보니 시집의 경제까지 저의 힘으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 자녀들을 가르치고 먹고 사는데 바빠 배우는 시기를 놓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면서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어 나도 한번 학교라는 곳을 다녀 봤으면 하고 꿈만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다 가정 사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먼 남쪽 섬에서 이곳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어 살게 되었는데, 저의 딸이 인터넷을 보더니 남양주시노인복지관에 노인대학이라는 곳이 있다고 알려 주어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학교라는 곳에 가보니 새삼스럽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또 한없이 즐거워 “아 나도 이렇게 학교를 다니고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마음에 마음이 뿌듯해졌습니다. 또 집에 와서 애들에게 나도 학교에 다닌다며 자랑도 하고 받아쓰기에 백점을 받았다고 자랑도 한답니다.

하지만 처음 등록 신청을 했을 때 바로 등록이 된 것이 아니고 3개월이나 기다렸다가 입학하고 학교에 나가 보니 복지관 직원들이 너무나 친절하게 맞아 주고, 설명도 얼마나 자세하게 해주시던지 참으로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교실에 들어가니 우리 선생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고 모르는 것은 끝까지 알고 넘어가게 하시려고 애쓰시는 마음이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날 뻔 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문제냐고 우리를 위로 하시며 열심히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우리가 여기 노인대학 아니면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아침 조회시간이면 복지관 과장님께서 모든 우리 노인들의 건강을 보살펴 주시고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셔서 저는 이 노인복지회관 노인대학에 나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되고 즐겁게 사는 기쁨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이곳에서 즐겁게 배우고 또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며 살아갔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글을 씁니다.

공모동기 | 남양주시노인복지회관의 노인대학을 다니면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글을 씁니다. 늦은 나이에 소원하던 글을 배우게 되었고 친절하게 노인들을 대해주시는 복지관 선생님들께 언제나 감사하며,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여기가 행복입니다

김병연 |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굽이굽이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47번 국도를 달리고 있을 때, 어디쯤 가고 있는 걸까? 하고 달리는 차 창가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어지러워 졌을 때, 드디어 목적지에 다달은 곳, 바로 이곳 남양주 오남읍이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낯설고 물 설은 타향이기만 한 이곳이, 이제는 나의 제2의 고향이 되고 나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이 되었다. 경치 좋고 산 좋은 명품 도시 남양주에서 새로운 삶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두드린 곳이 바로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과장님과 여러 직원들의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미소 속에서 즐겁게 지내며 이곳이야말로 나의 안식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월, 수요일 1교시는 오전 9시에 시작하는 컴퓨터기초 수업입니다. 그래도 “복지관” 버스는 이용할 수 없기에 집에서 7시 30분에 나와 버스를 따라가면서 학창시절의 등교시간을 회상해보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친절하고 유머 넘치는 강의는 우리 모두를 웃게 하며 피곤함을 단번에 날려 버리는 엔돌핀이 됩니다. 생전 처음 컴퓨터를 배우면서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게 느껴졌고 서툴게 치는 타자와 문서작성법과 기호법을 배우면서 역시 배움은 끝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하곤 했습니다.

첫 주, 이 강의실, 저 강의실을 설편과 호기심 어린 마음으로 기웃 기웃 하던 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절로 웃음이 납니다. 영어와 일어수업은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간다는 기쁨과 환희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적해서 시킬 때는 긴장되기도 하나 그러한 시간이 있기에 집에서 복습하며 공부하게 됩니다. 기억에서 사라진 영어 단어를 확인할 때는 뿌듯함과 함께 예전에 교정에서 친구들과 수다 떨며 내가 짝사랑하던 영어선생님을 생각하기도 하면서 감수성 예민했던 학창시절이 그리워지곤 했습니다.

“복지관” 버스를 타고 지나다 보면 남양주 장례식장이란 커다란 간판을 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져, 저 문을 나도 언젠가는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도 다 떨쳐버리고 즐거운 노인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며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면서 하루하루를 보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화요일 오후 마지막시간인 땀돌 체조시간은 또 다른 재미를 안겨 줍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며 운동하고 집에 돌아오면 몸도 마음도 가볍고 거뜬해서 건강에 참 좋습니다. 또 목요일 노래교실 시간은 흘러간 노래를 부르며 마치 가사

의 주인공인 마냥 희비가 엇갈려 마음속으로 울고 웃고 하는 신나는 시간입니다. 또한 물리치료실의 무료 서비스와 정성어린 손길은 우리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혜택입니다.

남양주시노인복지관의 모든 수업과 또 선생님들 이하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복지관”이야말로 노인들의 필요를 척척 알아서 제공하는 “요술상자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 “노인복지관”에서 다시 찾은 노년을 행복하게 보낼 생각을 하며 살며시 미소 지어 봅니다. 이 모든 것을 제공해주신 남양주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손옥주 |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무더운 어느 여름날 장마가 끝나고 밭으로 나갔는데 기운도 떨어지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밭농사를 지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잠시 생각에 가정경제가 넉넉하지 못하여 배추와 무 그리고 알타리무를 심기로 하여 밭에 씨를 뿌렸다.

큰아들도 한통 주고 작은 아들도 한통 주려고 마음먹고 열심히 일을 했다.
씨를 뿌리고 몇 일 후에 밭에 나가보니 싹이 예쁘게 나와서 마음이 흐뭇하였다.
“역시 심기를 잘했군 호호”

가을이 되어서 배추를 걷어 들어서 김장을 아주 맛있게 담갔는데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고 자식들 먹을 생각에 기분이 좋았다.

공모동기 | 나이 70이 넘어 남양주에 이사와서 노인복지관을 다니면서 다시 찾은 인생의 재미와 즐거움을 주신 복지관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와 삶의 즐거움을 표현하고자 응모 하였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김윤심 |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나는 그동안 서울에서 살다가 남양주가 어디에 있는 줄도 모르다가 남양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우연히 이웃 아줌마를 통해서 복지관을 소개 받았습니다. 와서 보니 여러 가지 배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배우지 못한 한글을 배워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한글반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항상 선생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성적이라서 표현을 잘하지 못합니다. 선생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저희들은 금방 들어도 잊어버려 우리를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노순 |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나는 글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복지회관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머릿속에도 들어오지 않고 낱말이 헷갈려서 손녀한테 물어 보기도 창피했는데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 스스로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답니다.

책상 앞에 앉아 다른 사람들과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야기 하는 것이 옛날 소학교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다 선생님께서 열심히 가르쳐주신 덕분입니다. 감사드려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선생님 실망시키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생님께

한상욱 |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선생님 안녕하세요.

노랑색 빨강색 울긋불긋 옷을 갈아입던 나뭇잎들도 이젠 한잎 두잎 떨어지고 늦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높고 파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한 웃음을 지어 봅니다.

선생님 요즘은 저절로 신이 나고 정말 잘사는 맛이 나는 것 같아요. 글을 몰라서 눈을 뜨고 살아도 감은 듯 했고 마음 한구석에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았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공부 한번 가르쳐 주지 못하고 엄마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찡 하군요. 공부를 못한 것이 한이 되었던 나는 할머니가 된 지금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만남

김양순 |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복지관에 와서 우리글인 한글과 서예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살면서 배우지 못한 것을 하나하나 공부하여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기쁨도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가 많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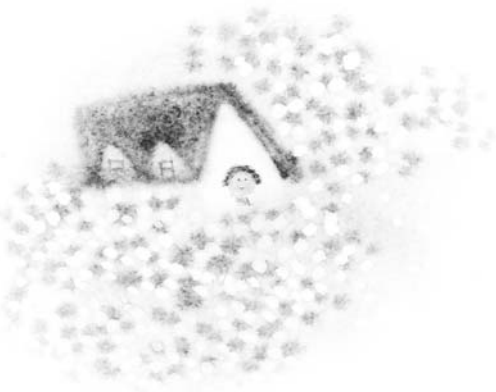
서로가 처음 만나서 쑥스럽고 어색하지만 함께 어울리고 차 한 잔 마시면서 서로 돕고 공부하면서 친구도 생기고 이런 만남이 더 소중한 만남이지요.

꽃은 눈으로 보이는 아름다운 자태와 향기만 있지만, 사람은 개인별로 독립된 인격이 있으며 감정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슬프거나 기쁠 때 같이 울고 웃으며 더불어 사는 인간사의 정은 세상에서 꽃향기 보다 더 진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이러한 모든 것을 복지관 왕학분 선생님을 만나서 한글 공부를 가르쳐 주어서 잊어먹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글 공부를 배우는 동안 왕학분 선생님이 “고마운 꽃보다 아름답고 향기로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복지관 사랑합니다



유순례 |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저는 복지관가서 훌륭한 왕학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훌륭한 선생님 때문에 공부하고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한글만 알았지요. 그래서 우리 왕학분 선생님 때문에 받침을 배웠습니다. 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선생님 파이팅!!

사랑하는 우리 훌륭한 선생님 사랑합니다. 복지관도 사랑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복지관은 행복관

김분이 |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나는 학교를 못가고 지나온 나날이 정말 힘든 부분이 너무 많았다. 은행, 동사무소에 가면 종이 한 장 을 주면서 “씨주세요.” 나는 답답할 때가 한두번이 아니 었고. 공무원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돌아오는 길은 공부에 굶주린 내 자신이 싫어졌다. 나는 6.25, 보릿고개 그 시절에 태어난 것을 후회도 원망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고 초라해 질 때, 학교 공부를 생각하면서 지나온 세월 지금 칠십 문 앞에 와서 행복관. 그곳에서 글씨를 쓰고 또 읽는 지금이 즐겁습니다.

첫째, 나는 행복관을 좋아합니다. 좋은 선생님을 만나 공부도 할 수 있고 다 지난 공부지만 언제쯤 막히지 않는 글씨를 쓸 수가 있을까? 잘 쓰지도 못하면서 수필 신청서를 받는 순간 가슴이 뛰네요. 짧은 글로 무슨 말을 어떻게 써야하나 아무튼 난 행복관에서 배운 실력으로 써보자 생각했습니다. 행복관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 공부도 하고 친구들도 많이 생겨 즐겁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한글 초급반 왕학분씨. 바쁜 시간 쪼개며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선생님의 기대에 이루지 못하고 늘 죄송합니다. 그래도 행복관 가는 날은 언제나 마음은 기쁘고 새롭다. 배움의 기쁨도 크고 돌아오는 길은 무엇을 한 아름 안고 오는 기분이지요. 2009년은 알차고 보람 있었다고 생각하며 앞으로 좀더 노력해야 할 텐데 아쉬움이 너무나 많을 뿐입니다. 우리 반 모두모두 문맹에서 탈출하자! 왕학분 선생님 정말정말 고맙습니다. 파이팅 만만세 그동안 수고하신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순숙 |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사람이 사람으로서 중요한 것은 좋은 생각을 할 줄 알기 때문이다.

좋은 생각이랑 예절에 맞는 생각이며, 그 예절을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행동을 말하는 것이며 그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 꽃을 볼 수 있는 사랑이 없다면 그 꽃의 가치는 없는 것이다. 그 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눈이 있어야 그 꽃의 가치가 인정 되는 것이다.

많은 꽃을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꽃 속에 파묻혀 있다면 꽃도 아름답지만 그 꽃 속에 파묻혀 있는 사람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그야말로 꽃 중에 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다.

박일순 |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내 나이 벌써 73세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서 고생고생 하다 보니 배우지도 못하고 살아온 세월이 억울하기도 해서 늦게나마 배움을 찾아 여기저기 찾다가 이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노인들만이 배울 수 있는 장소여서 편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 자음 모음을 익히며 배우는 내 자신이 창피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어렵게나마 한자 한자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도 야무지고 똑 소리 나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글도 배우고 장구도 배우고 일주일이 금방금방 가서 삶의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배워서 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



김세현 | 노인복지관 이용어르신

왕학분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금방 들어도 잊어버리는 나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시느라 얼마나 머리 아프시겠어요. 너무나 꼼꼼히 하나하나 잘 가르쳐 주시는 덕분에 이젠 거리를 지나면서 아는 글자를 보면 그 자리에 멈추어 읽어 본답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배워서 책도 많이 읽고 싶고 손자 손녀 공부도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저의 눈을 뜨게 해주신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천사 할머니

유준희 | 시민

우리 내외는 50년을 해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동반자인 남편이 위암 판정을 받고 시한부 인생으로 6개월 사시다가 돌아가셨다.

남편은 마지막으로 “인명은 재천이다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 그래도 그이의 마지막 일기장에 ‘어떻게 하나? 사랑하는 당신을 두고 먼저 가야하니...’라는 그 애절한 글 줄기에 그만 난 눈물을 펴펴 쏟았다. 그이가 떠난 이후로 저녁때면 들어오는 것 같고 보고 싶어서 미칠 것만 같았다. 젊은이들은 살만큼 사셨는데 하겠지만 오래 살수록 정이 더 드는가 보다. 슬픔과 절망 속에 보내던 중 가까운 노인정을 가게 되었다. 가보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했지만, 꽃도 질 때는 보기 싫듯이 노인들이 몇 분 앉아 계시는데 머리는 하얗고 등은 굽고 이는 다 빠지고 찌글찌글 원숭이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주도 첫 여행의 추억

나도 머지않아 저렇게 변하겠지 너무 너무 불쌍하게 보였다. 그래서 나는 저 노인들을 위해 무슨 봉사를 할까 생각을 했다. 다행히 지금은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노령 연금도 나오고 노인정에 운영자금도 잘 나오고 아파트 관리실에서도 보조금을 조금 보내오십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노인정에 천사 할머니 한분에 대한 이야기이다. 나이80이 다되신 분인데, 비닐하우스 에서 밭일을 하고 계신다. 여름엔 하우스 속이 엄청 덥다. 겨울엔 추워서 윤기순(가명) 할머니 손가락이 얼어 꾸부러져서 펴지지도 않는다. 그런 분이 노인들을 위하여 달마다 쌀을 사오시고 무겁게 채소를 지고 오신다. 이 해가 다가기전에 시루떡을 해 오신 다고 한다.

그래서 “할머니 노후 대책도 하셔야죠?”

물었더니 할머니 말씀이 “우리 자식들이 잘사는데” 하신다.

나는 그 말씀에 감동을 많이 받았다. 베풀고 살면 자손들이 잘되나 보다. 저도 노인들이 무얼 좋아 하시나 생각을 해보고 사시는 날까지 편안하게 계시다 고생 덜 하시고 편안하게 가시는 게 나의 바람이다.

유준희님은 자원봉사에 대한 자신의 동기 및 소감을 전달하기 위해 공모하였으며, 자신도 어려운데 이웃을 돌보시는 할머니님의 만남을 통해 자신도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느낀 계기를 글로 표현하셨습니다.

이영자 | 장애인 보호자·자원봉사자

나는 어쩌다보니 나이가 60세가 되도록 제주도를 여행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살았다. 살다보니 참 나를 위해서 별로 한 게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더구나 몇 해 전, 뜻하지 않게 남편이 산업 재해로 장애를 입게 되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그냥 주저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병원과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남편과 함께 피눈물 나는 재활을 한 덕분에 이제 남편은 위커를 이용해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하는 2009 복지 관광에 지체장애 2급인 남편과 함께 참가했다. 숙소 문제 때문에 남편은 남자 대학생이 담당하기로 하고 나는 다른 여성 장애인과 함께 방을 쓰며 그들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참가하게 되었다.

마침 장마철이라 비는 오다 말다를 반복하며 굶은 날씨가 계속되었어도 속상하기 보다는 오랜만에 여행이라는 단어가 가슴을 설레게 했다. 그리고 유명 관광지답지

않게 소박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비가 내리는 탓에 첫날 일정을 바꿔야 했고 제일 먼저 감굴 박물관 관람을 하였다. 감굴 나무에 대한 역사 설명을 듣고 쿠키 만들기 체험에 참관 하였다. 쿠키 만들기는 어렵지는 않았으나 예쁜 모양은 마음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들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만들고 익히는 과정을 보며 맛도 보았다 새콤달콤하게 맛있었다.

숙소에 도착하니 비가 더욱 많이 내렸다. 저녁을 먹은 후 자유시간이 있었지만 비가 오는 까닭에 창밖의 빗소리를 들으며 소중한 시간을 아쉽게 보내며 “그래 오늘 밤 많이 내리고 내일은 활짝 개었으면 좋겠다.”하자 일행들이 “그러게요”하면서 웃었다. 불편한 몸을 이끌고 선생님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날씨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일행들 마음이 너무 슬플 것 같았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 탓이었을까? 아침에 일어나니 흐리기는 했어도 비는 오지 않았고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성읍민속마을, 조랑말 타기, 우도유람선 관광, 천지연 폭포까지 시간을 쪼개 둘러보았다. 나와 다른 봉사자들은 참가한 장애인들이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를 밀고 비지땀을 흘렸다. 그 도움이 있었기에 우도를 비롯해 성산일출봉까지 구경할 수 있었다. 짙은 잉크빛 바닷물과 성산 일출봉이 어우러져 펼쳐지는 절경은 웅장하고 거대하였다. 우도의 모습이 고요한 호수 같다면 성산 일출봉은 웅장함 그 자체였다.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르는 우도의 소머리 형상과 일출봉의 병풍처럼 펼쳐있는 기암절벽이 펼쳐진다. 보는 각도에 따라 여러 가지 모습인 우도는 코끼리, 누워있는 소 그리고 거북이 형상으로 자연의

신비 그대로였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탁 트인 녹색의 산과들 파란들판에 풀을 뜯는 소 떼가 평화롭게 보였고 이따금 밭 한가운데에 사각 돌무덤이 이색적이었다.

마지막 날에도 하늘은 우리를 도왔다 고운 햇살아래 덥다고 하면서도 모두 밝게 웃으며 힘이 들어도 걷기도 하고 휠체어에 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일행들은 힘겹게 한림공원, 협제해수욕장, 제주국립 박물관을 관람하였다. 숲속의 싱그러운 향기가 느껴지고 처음 보는 식물 앞에 탄성이 저절로 나왔다. 분재나무 하나하나 예술이고 작품 이었다. 우리는 기대했던 협제해수욕장으로 차를 돌렸다. 초록빛 바닷물이 반짝이며 출렁였고 검은 회색바위에 부딪치는 파도와 길게 펼쳐진 백사장이 한눈에 펼쳐졌다. 일부 일행들과 학생 봉사자들이 조심스럽게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바다로 향하였고 어느 일행은 맨발로 백사장을 밟으며 사진도 찍었다.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다. 저 멀리 수평선이 예쁘게 보였다.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 같다.

2박 3일의 행복한 여행을 끝으로 부족함이 많은 우리들을 인솔하고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애써주신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 진행자 선생님들과 나를 포함한 자원봉사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편을 포함하여 참가한 모든 장애인 여러분에게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광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불러 주세요.

이영자님은 장애2급 남편을 둔 주부로서 남양주시장애인복지관의 제주도 여행 프로그램에 남편은 대상으로 본인은 여성 장애인을 돕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면서 느낀 소감과 여행을 주관한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꽃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

제안합니다. #6

남양주시에 살아가는 시민과 사회복지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느낀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현장에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대안을 제시한 글입니다.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제안이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돋보이는 글입니다.

지술현

낙엽이 하나둘 떨어지더니 발아래로 점점 수북이 쌓이며 그만큼 가슴이 뻥하게 만드는 공허함이 밀려든다. 이 공허함의 끝이 새로운 삶의 준비를 알리는 신호임을 알아채면서 나는 42살이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평생 갈망하던 대학 생활에 도전하게 되었다.

늦었다고 시작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고 하지만 사회에서 내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기에 접근성과 효율성을 갖추고 앞으로의 장래성까지 따져볼 때 사회복지만한과는 없는 듯하였다. 그래서 무작정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20살 청춘들과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그들보다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학교생활을 하다 보니 전체 수석도 해보고 남들보다 빠르게 2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다. 늦은 나이에 리포트며 실습이며 시험 준비에 툼툼이 국가자격증까지 따러니 정신없이 달려야만 했

있고 좀 더 쉽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내가 좋아 선택한 길이었기에 대충대충 하기는 나 자신에게 부끄러웠다.

지역사회복지 시간에 지역사회 사회복지현황에 대해 리포트 제출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대충 인터넷에 의존하거나 책을 요약하는 친구들도 많았지만 적어도 나는 정말 우리 지역사회에서 어떤 복지정책이 일어나는지 무척 궁금하기도 하던 터라 일단 지역주민센터 사회복지과를 찾아갔다. 담당 직원의 자세한 현황 소개와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세 등을 들으면서 우리지역에서 희망케어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빨래에서 진료·집수리까지 누군가에게 도움이 꼭 필요할 때 연락하시면 든든한 도우미가 되어 준다.”는 희망케어센터의 재가복지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제도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제도라고 판단되어 한번쯤 꼭 다시 찾아보고 알아보고 싶어졌다. 마침 사회복지실습을 한 달간 이수해야 되었기에 나는 주저 없이 우리 동네 서부희망케어센터에 실습을 신청하였고 나의 적극적인 태도에 센터장님은 실습을 허락해 주었고 나와 희망케어센터와의 인연이 시작되었다.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맞춤형 복지를 궁극적 목적으로 하는 남양주시 서부희망케어센터의 특성상 여러 가지 사례의 대상자들을 만나고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대상자 자녀학습지원, 때로는 목욕과 상담도 해드리면서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제공 및 사례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체험하였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정말 보다 많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며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절실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도 일 년에 몇 번 종교단체 등에 후원금을 내는 것 이외에는 자원봉사한번 하지 못했던 내가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에게 지지자가 되어주고 후견인이 되어 준다는 사실에 새삼 놀람기도 하고 함께하지 못한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였다. 그나마 실습을 통하여 몇몇 대상자들에게 자원봉사를 할 기회가 주워졌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10년 넘게 누워만 있어 할머니처럼 보이는 50도 안된 아주머니였다. 그분의 갈라진 발을 닦아드렸더니 부끄러운 듯 너무나 시원하다시며 좋아라 하셨는데 다행히 희망케어에서 방문 목욕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정기적으로 목욕을 해드릴 수 있게 되었다. 그 후로 몇 번 과일을 들고 찾아뵈었는데 지역이 재개발 되면서 이사를 가셔서 인연이 더 이상 이어지지는 못하였다.

희망케어센터는 남양주시가 중심이 되어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등 4개 권역으로 나뉘어져 각 권역을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정부의 인적, 물적 자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민간기관이나 자원봉사 등을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 하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 나름대로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을 생각해 보았다.

첫째, 방대한 서비스의 양에 비해 직원의 업무 분담이나 책임량이 너무 방대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직원의 전문적인 역량 발휘가 미흡하며 업무효율성이 저하될 수 있다.

둘째, 서비스의 다양성에 비해 전문성이나 질적인 서비스의 연속성의 문제로 대

상자에게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이다.

셋째, 후원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로 후원자에 대한 후원에 관한 보고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가의 문제이다.

넷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 현재 일어나는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인 아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나 프로그램들의 개발에 대한 노력으로 지역의 특성상 다문화 가정이 많은 남양주시에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요 희망이다.’ 때문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릴 때는 그 중심에 아동에 있다. 그리고 가정의 중심 또한 아동에 있다.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은 밝고 건강한 가정이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한국 가족은 그 어느 때 보다 구조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더욱 약해져 심각한 가족 문제를 앓고 있다. 최근 급증하는 이혼 문제는 이혼 전 동거기간이 세계에서 가장 짧은 나라로써 인구고령화 현상으로 노인부양 문제와 맞벌이 가족의 아동 부양 문제, 가족 해체의 증가로 인하여 늘

어가는 편부모가정과 소년소녀가정 등의 결손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등교 거부 문제와 이상 행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외에 청소년 비행의 문제 등이 가족 문제에 뿌리를 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처럼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아동들에게 가정에서처럼 안전하고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



함을 느낀다.

급속히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1인당 1.06명으로 세계 최저이며 향후 300년 후에는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거라는 통계가 영국에서 발표되었다고 한다. 선뜻 믿어지지 않겠지만 16년 전인 1992년까지만 해도 한국은 세계 1위의 입양아 송출국이었다. 세계 최대의 입양아 도입국 이었던 미국의 집계에 의하면 1992년에 세계 104개국에서 6549명이 들어왔다.

이 가운데 한국에서 온 입양아가 27.3%인 1787명으로 1위였다. 그 전까지 한국이 미국에 보낸 입양아는 1988년 4942명, 89년 3552명, 90년 2603명, 91년 1817명 등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개발도상국에서 미국으로 보내지는 입양아들은 대개 가난에 쫓겨 오는 경우였다. 그러나 6·25전쟁 직후 1950년대에서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세계 최대의 전쟁고아 송출국이었다. 문제는 전쟁고아 세대가 끝난 뒤에도 입양아 송출이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를 거쳐 6.25를 겪으면서 아동들의 해외입양으로 경제 성장에 암울한 기여를 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노인 복지에 비해 요보호아동의 문제는 다분히 미흡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2008년 3월 미국에서 영문도 모른 채 우리의 입양된 아이4명이 수양부에 의해 둔기로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모든 아이들이 이 땅, 우리의 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국내 입양의 활성화,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그룹홈)지원 등을 통해 국외입양을 대폭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앞으로 현장종사자,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현실은 사회복지를 공부한 나조차도 가정 위탁이 생소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는 어떻게 가정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시청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해보았지만 담당자와 통화가 몇 번에 걸쳐야 가능했다.

이번에 조사한 남양주시는 인구가 50만을 돌파하여 전국에서 13번째로 많은 인구를 자랑하는 도시임에도 요보호아동으로 등록된 수는 138명에 불과했다. 그러면 나머지 아동들은 모두 가정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것일까? 미혼 부모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부모와 원가정에서 생활할 수 없는 아동들은 어떠한 보호 장치 안에서 생활하고 있을까?



저출산의 수치에 연연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큼 발견되지 않은 요보호 아동들을 관심을 가지고 발굴하고 관리하여 가정위탁과 연결하고 그 아이들이 다시 원가정으로 돌아가서 보통의 아이들과 같이 생활할 수 있다면 사회문제 해결 측면에서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성장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UN아동권리위원회는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은 1909년 백악관회의에서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살 권리, 아동에게 신중하게 선별된 위탁가정은 자연적인 가정의 최고의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원가족 재결합과 아동의 욕구를 고려하는 위탁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2003년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립한 우리나라는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다. 가정위탁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다양화된 가족관계에 대한 보편적인 시각

으로 바라보는 성숙된 인식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래의 주역인 아동에 대한 자원을 확보하여 가정위탁제도가 잘 자리 잡힌 미국처럼 보편적·경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그 절차 또한 체계적이나 복잡하지 않으며 접근성이 용이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무엇보다 요보호대상인 아동들이 개별적인 보호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들이 위탁 가정에서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이러한 가정위탁 사례들을 체계화하여 개개인에 대한 사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이 모든 것을 민·관·개인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전파해 간다면 가정위탁의 미래도 반드시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외국에서 결혼 할 신부도 수입하는 현실에서 혈통주의를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에 위배되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이기에 훨씬 수월하고 친밀하게 가정위탁이 보급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홍보마케팅과 전담 직원들의 체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가 양성 교육 및 사례 관리와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업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희망케이라고 생각한다. 민·관이 함께 하는 희망케어가 아동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하여 주민의 적극적인 협력을 이끌어 낸다면 지역 사회의 문제



해결은 물론 국가적 차원에서도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꽤한 도시 남양주시가 실시한 희망케어가 성공리에 진행되는 것처럼 노인복지의 중요성도 좋지만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는 아동들이 행복하게 꽃처럼 맑고 밝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선봉장이 되기를 개인적으로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작은 실천은 바로 내가 가진 행복을 나누는 것이라고 한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되고 기쁨은 나누면 두 배가 된다고 하니 가정 위탁에도 나누는 기쁨이 하나 둘 또 그렇게 배가 되어 대중의 중심에 자리매김하길 바라본다.

그리고 꽃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아이들이 남양주에서 또 그렇게 전국에서 행복하게 민들레 꽃씨처럼 퍼져나가길 거듭 바라본다.



지술현님은 뒤늦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학생이자 남양주 지역사회 주민으로 실습했던 희망케어센터의 제안점과 함께 요보호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한 지역 사회내 위탁가정제도의 제도적 마련에 대한 전공적인 지식 배경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죽음준비학교 운영을 제안합니다

박구현

안녕하십니까.

먼저 귀청 주민 지원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관하시는 제1회 사회복지 수필 공모전을 추진하시는 귀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각계 각층 복지 계층에서 자원봉사 참여자 여러분에게 많은 격려와 응원과 양지에서 숨은 봉사자들에게 더 많은 봉사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독려할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일이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귀청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무한한 발전과 후원사인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에게도 감사를 드리며 줄필이나마 특정한 곳, 노인정 등에 교육을 받은 내용 중에서 저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 교육이 있어서 이번 수필공모전을 통해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죽음 준비 학교로 교육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를 깨우쳐 준 사람 그리고 사랑

죽음이란 예측불허의 삶의 현실 앞에 인간은 두려움과 공포를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하는 죽음을 아는 것, 그것이 삶을 아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죽음준비 교육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 살아서 움직이는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임을 일깨워 주는 교육입니다.

교육 내용을 몇 가지만 소개하면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지고 자서전 쓰는 방법, 자유롭게 자기 희망대로 유서 쓰는 법, 유서에 필요성, 상속법상식, 새로운 장래 문화, 현장견학 등, 다양한 교육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담당 강사님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전에 살았던 서울시 노원구의 노원노인종합복지관으로 문의 하시면 됩니다.

남양주로 이사 오고 나서 이와 같은 내용의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남양주의 노인복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 및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남양주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지혜롭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죽음준비학교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구현님은 협의체로 직접 쓰신 편지(한문이 많아 해독하기 어려웠습니다.^^)를 우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박구현님은 자신이 경험한 죽음준비학교라는 프로그램이 남양주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해 주셨습니다.

고정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쯤으로 기억된다. 당시 나는 대기업 신입사원으로 입사했고, 연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게 되었다. 난생 처음 가까이서 장애우들을 만났는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무엇부터 해야 할지 정말 난감했다. 그럼에도 며칠 동안 청소나 빨래 그리고 전쟁기념관 방문과 같은 여러 가지 일을 했고 나름대로 보람도 느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계단이 그리고 한 발자국의 감각에 생명이 의지해야 지하철 플랫폼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내가 이 해묵은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따로 있다. 나를 마지막 날까지 지켜보던 한 여자아이(그때까지만 해도 나보다 어린 줄만 알았다)가 나를 조용히 부르더니 “나이가 어떻게 되요?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내가 지금 서른다섯이에요” 하며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고 무조건 말을 놓을 때가 가장 괴로워요”하는 것이었다. 순간 스물셋의 나는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고, 장애우들의 외모가 일반인들과 달라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을 당할까봐 나만 조용하게 불렀던 배려심은 나를 더욱 부끄럽게 하였고, 거들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다. 신체적인 장애 때문에 며칠간

어린 친구에게 반말을 들어야 했던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이 지울 수 없는 일을 통해 나는 장애인 단체에 적은 돈이지만 꾸준히 기부를 하게 되었다. 그렇게라도 해야 그분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리고 어렵게 만든 탈이나 비누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물건들이 배달되면 이웃에게도 하나씩 나눠주며 은근히 기부를 권하기도 하였다. 물론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빼먹은 적도 있지만, 그 때마다 웬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같은 허전함에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리고 얼마 전 딸의 손을 잡고 가까운 읍사무소의 희망케어센터에 방문했다. 이제 초등학교생인 딸에게 나눔에 대해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해 조금씩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물론 매 연말이면 여러 형태의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하여 참여 하긴 하지만, 자신의 용돈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는지 직접 알려주고 싶었다. 그리고 비록 적은 돈이지만 희망케어센터에 기부를 시작하였는데, 자신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 기쁘다는 말을 하는 딸이 대견하고 고마웠다.

만약 14년 전 내가 장애우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면 특별히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나로서는 사랑을 나누는 실천을 시작하기가 어려웠을지도 모른다. 더구나 자신의 처지를 감사하기보다 이기심과 욕심이 더 커졌을 것이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많이 짊어지고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기회를 계기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어려운 이웃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쉬웠으면 좋겠다. 지금은 '장애인의 날' 행사나 교회나 단체를 통해 어려운 마음을 먹어야 해서 일반인들이 '나눔'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가 어렵다. 만약 어른이나 어린이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바자회 등을 활성화 할 수 있다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특별한 날이나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양주 각 읍의 학교나 체육시설에서 학교별로 번갈아가면서 정기적인 행사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참여 학교에 대해서는 가산점과 같은 메리트를 주는 것이 어떨까. 이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사랑을 가르치고 어른들에게는 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회가 될 것이다.

둘째.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이 매회 자동으로 이메일 전송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솔직히 돈을 기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물론 연말 정산시 기부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영수증 발급해달라는 말을 하기도 참 무안하다. 더구나 요즘은 누구나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는데 자동으로 '기부 영수증'이 나오는 것도 아니라 연말 정산시 누락되기도 한다. 또 같은 곳에 기부하지 않은 경우엔 연말엔 어느 단체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따라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시설이나 단체라면 기부금에 대한 영수증이 매회 자동으로 이메일로 전송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다.

셋째. 봉사활동에 참여하기가 쉬웠으면 좋겠다. 일반인들이 쉽게 봉사활동을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시간을 쪼개서 매번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다. 더구나 일회성 방문이 오히려 상처만 남기 때문에 더 싫어한다고 하니 하고 싶어도

자신이 없다. 따라서 각 시설에서 편한 자유 시간을 공개하고 그 시간만큼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봉사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이웃집에 놀러가듯 편하게 가서 함께 책도 읽고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그래야 거리감도 좁혀지고 그들과는 '다름'이 아닌 '함께'라는 의식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똑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건만,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다르게 대우받는 이들의 심리적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내가 그 입장에 처하지 않으면 쉽게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가 그들을 이해하려면 가까이 접하는 기회가 찾아야 할 것이다. 건강한 우리가 마음의 장애를 지니고 살아가지 않도록 사랑을 나누고 실천해야 한다. 매서운 겨울 추위 속에서도 따뜻한 호빵을 배불리 먹으며 TV앞에서 웃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느 곳 누군가는 그 호빵의 맛을 궁금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나에게 조용한 일침을 놓으며 삶의 태도를 일깨워준 내 기억속의 그분께 감사드리고 미안하다는 말도 전하고 싶다.

공모동기 | 오랫동안 품어 온 미안함을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접할 기회가 있어야 진심어린 나눔이 실현된다는 것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오래 전, 장애인 시설에서 잠시 봉사를 하다가 큰 실수를 겪게 된 계기를 통해 겸손함을 배웠고, 장애우를 돕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60명이 넘는 분들의 각기 다른 문맥의 글을 몇 번씩 읽어가며 편집을 끝내는 지금... 눈은 빠질 것 같고 머리는 멍하지만 마음은 참 따뜻해져 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현장의 사연들을 글로 모으면 현실적이고 대안적인 이야기들이 많은 나을 것이라 말씀해 주셨던 협의체의 민간&공공 위원님들의 제안들이 글을 통해 증명된 거 같아 기쁨과 보람이 큼니다.

사회복지수필 공모전에 참여하신 다양한 분들의 글을 통해 몇 명을 도왔고 몇 건의 사업을 했는지 수치화 되어서 답는 양적 성과 이상의 현장의 질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진심을 담은 헌신과 현장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의미 있는 만남들을 어떻게 숫자 일색의 딱딱한 성과보고서에 담아낼 수 있을 런지요.

시민이자 실무자로 남양주시에 거주하면서 '참 열심히 일하는 현장의 실무자들이 많구나... 시민들이 지역사회에 대한 공동체의식이 강하구나...'라고 막연하게나마 느꼈던 것들이 한사람 한 사람의 글을 통해 나타내어 질 때마다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수필공모집에 실린 글들은 한명 한명의 삶의 고백임과 동시에 남양주시의 사회복지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 주는 완성도 있는 연구보고서와도 같은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고백을 담은 제1회 사회복지수필공모전에 참가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바쁜 업무 때문에 글을 쓸 여유가 없어 직접 참가하지는 못했지만, 동료와 자원봉사자, 시민들에게 글을 쓰도록 독려해 주시고 홍보에 협조해 주신 많은 협의체 위원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수필공모전을 개최하는 의미를 공감하고 동참해주신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없었다면 아름다운 사람 꽃은 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책자를 통해 아름답고 소중한 이야기들이 남양주시 곳곳에 전해지길 소망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사업 및 주민복지서비스 관한 중요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으로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민·관 협치 기구입니다.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 7조 2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 1조의 3.4 대통령 훈령 제172조 |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본원칙

지역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관할 지역내의 사회복지현안에 집중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도 지역적 테두리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므로, 지역적 토양, 즉 지역 주민, 지역육구, 지역 내의 자원 등을 고려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활동을 해나갑니다.

참여성

- 네트워크 조직을 표방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법적 장치나 규제보다는 사람들의 자발성이 일차적인 동력이 되어집니다.
-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관련 단체로의 외형을 가지지 않고, 본연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참여성 확보는 지역사회 내에서 대표성을 가진 참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협력성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 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복지 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설립 취지입니다. 이는 지역복지의 기획과 실행 기능을 위해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적 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방법론으로 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주요기능



협치(Governance) 기능

지역복지의 주요사항을 민간과 공공이 협의하여 의사결정, 심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건의

연계(Network) 기능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의 연계 및 조직화

통합서비스 기능

- 협의체 내에서 각 분과간 통합 및 조정의 역할과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한 지원
-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의 보건복지연계이외 타 영역과의 연계 확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조



실무협의체의 역할

- 공동사업 개발 및 건의
-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및 연계 협력에 관한 협의 및 건의
- 대표협의체 심의(건의)안건 사전검토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이슈에 대한 논의
-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및 협력 도모
- 지역사회 자원개발 관련 협의 및 건의

실무분과의 역할

- 공동사업의 수행
- 대상자별 사례회의
- 서비스 제공 및 연계, 건의

생애주기별 실무분과 |

영·유아분과, 아동·청소년분과, 노인분과

대상별 실무분과 |

장애인분과, 여성분과, 이주자분과

기능별 실무분과 |

총괄기획분과, 통합사례관리분과, 자활고용분과, 시민문화분과, 생활체육분과, 보건의료분과

대표협의체의 역할

- 지역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심의 및 건의
- 사회복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
- 지역의 복지문제에 대한 협의 및 건의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관련협의
- 복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남양주 시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남양주시 주민의 행복과 더불어 사는 복지 공동체를 앞당기기 위해 민·관이 함께 협력합니다.

이를 위해 협의체는 남양주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남양주의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에 항상 열려있습니다.

살기 좋은 남양주를 앞당기기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중장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욕구 반영_ 상반기

사회복지제도 전반에 관한 시민정책제안_ 시민 생생 아이디어 공모전. 5월

사회복지 현장의 이야기에 대한 수기 공모_ 사회복지 수필공모전. 11월

사회복지 현장 사진 공모_ 생애 최고 사회복지현장 사진 콘테스트. 연중

체험 중심의 다양한 시민 참여 사업_ 주민서비스 박람회. 9월

www.nyjwelfare.org

발행일 2010년 1월 | 발행처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기획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총괄기획분과 |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641 주민생활지원과 내 |

전화 031,590,8649,8929 | 팩스 031,590,8679 | 디자인 인쇄 우리미술 02,2275,6960

